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미 래 로　함 께　나 아 가 는　우 리

사회공헌 보고서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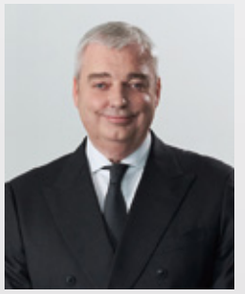
2018 - 202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회공헌 활동에서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까지

그 8년의 여정

“지속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동행,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을 대표해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리게 되어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설립한 비영리 사회공헌재단입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사회공헌 기조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포용과 혁신,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자동차 산업을 이끌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둡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재단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디며 그간 저희가 걸어온 길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와 헌신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계속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감을 받습니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목적 중심의 이니셔티브와 영향력 있는 발걸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의 힘찬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틸 셰어 Till Scheer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이사장

CONTENTS

Moving you. Moving forward.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동행,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06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의 세 가지 대표 프로그램 10

WE: Learn
교육 프로그램

대학생을 위한 SEA:ME 프로그램 14

초중등생을 위한 코딩 교육 16

교육적 전시 및 프로그램 20

WE: Preserve
환경 프로그램

청계아띠 24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24

산림 재조성 24

교실숲 및 환경교육 25

WE: Share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시크릿 산타 28

겨울 방한키트 28

그린 기프트박스 29

수상 내역 30

Moving you.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

2024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설립한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 출범한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다짐이다.
뛰어난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나가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사회.
이것이 바로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 그리는 사회이자 미래다.

Moving forward.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동행,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설립한 비영리 사회공헌재단이다. 한국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 지원에 공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왜 우리(WE:)재단인가?
'우리'는 순우리말로 협력, 단결, 포용을 상징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공동의 행동과 책임이 함께할 때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한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우리(WE:)'라는 이름에 담았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공감과 존중을 기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하고, 우리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의 씨앗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의 씨앗이 된 사회공헌 활동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4월,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한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소외계층을 지원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지속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세 가지 목표와 맞닿아 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이뤄내기로 결의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념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특히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4번째 목표-양질의 교육, 11번째 목표-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3번째 목표-기후변화 대응과 맞닿아 있다.

WE: Learn

교육 프로그램

미래 자동차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본사인 독일 소재 폭스바겐그룹은 소프트웨어 주도형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의 핵심 두뇌 역할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고도로 훈련된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역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 사업을 개발 및 확대함으로써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미래 자동차 기술 부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SEA:ME 프로그램 – 모듈 및 프로젝트 개발

SEA:ME(Software Engineering in Automotive and Mobility Ecosystems)는 '42 볼프스부르크'가 최초 개발한 코딩과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춘 석사 수준의 교육 과정이다. 42 볼프스부르크는 폭스바겐그룹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해 제공한 기금으로 설립된 독일의 비영리 코딩학교다. 모빌리티에 대해 360°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최초의 응용 교육 과정인 SEA:ME 프로그램은 모빌리티 기술과 연구,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개발되는 개방형 교육 자원(오픈소스)이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진화한다.

2022년 3월,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참여 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국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인 학생 4명을 독일에 위치한 비영리 코딩학교 42 볼프스부르크에서 운영하는 SEA:ME 프로그램에 파견했다.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2023년 4월 13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컨소시엄, 42 볼프스부르크, 주한독일대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컨소시엄의 주관대학인 국민대학교는 42 볼프스부르크와 함께 SEA:ME 커리큘럼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s), 자율주행 시스템(Autonomous Driving Systems), 모빌리티 생태계(Mobility Ecosystem) 등 세 가지 핵심 모듈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어 2023년에는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여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Mobility Cyber Security)와 안전필수 시스템(Safety-Critical System) 모듈이 추가로 개발되어 공식 커리큘럼에 반영되었다. 2025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모듈을 한층 더 고도화하기 위한 트럭 플래투닝(Truck Platooning)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커리큘럼 개발은 자동차 제조사, 모빌리티 및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제공업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펠로우 그룹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민대학교 김종찬 교수와 LG전자 홍현택 연구원, 삼성전자 정시형 연구원이 펠로우로 함께하고 있다.

장학 사업

SEA:ME @Germany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커리큘럼 공동 개발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소속 학생들을 3년간 매년 10명씩 선발해 42 볼프스부르크 캠퍼스로 파견하기로 약속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SEA:M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모듈을 먼저 이수한 후, 각자 선택한 한 가지의 추가 모듈을 학습하게 된다. 각 모듈은 6개월간 진행된다.

이들은 동료간 학습방식(peer- learning)으로 운영되는 총 12개월간의 과정을 통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 기업 및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된다.

2025년 현재까지 총 34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으며, 1기와 2기 졸업생들은 국내외 자동차 및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현재 3기 학생들이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새롭게 선발된 4기 10명은 올해 말에 42 볼프스부르크에서 학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및 확산

SEA:ME @Korea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SEA:ME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커리큘럼을 국내 교육 시스템에 맞춰 최적화한 SEA:ME @Korea를 론칭했다.

SEA:ME 해커톤

SEA:ME 해커톤은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로, 미래자동차 및 지능형 로보틱스를 연구하는 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관하고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 후원한다. 2023년 대회의 주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이었으며, 2024년에는 트랙 기반 내비게이션(지정경로 주행기술), 신호등 정지 미션, 정적/동적 장애물 회피 등 자율주행의 핵심 기능으로 주제가 확대되었다.

SEA:ME 해커톤은 SEA:ME 프로그램의 동료간 학습방식을 반영, 전문가 심사와 참가자 간 평가 모두를 기반으로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SEA:ME 동아리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는 SEA:ME 참여 대학 내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내 학생 동아리가 SEA:ME @Germany 커리큘럼 중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비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제형 (2기 SEA:ME @Germany에 참여한 국민대 졸업생)

"수업을 통해 이론으로만 접했던 개념들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코딩과 프로그래밍 역량뿐 아니라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확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체감할 수 있었다. 42 볼프스부르크에서의 경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커리어에 대한 확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초중등생을 위한 CODING EDUCATION

초중등생을 위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2019년 시작한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를 이어받아,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2024년부터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코딩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재단은 이 같은 기조를 기반으로 학습 기회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미래 모빌리티 체험교육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미래 모빌리티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를 위해, 프로그램을 상시 학습공간에 제공함으로써 접근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년 8월부터 재단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Seoul RAIM)에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기증. 미래 모빌리티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의 모빌리티와 도시 환경,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 시키고 있는지 탐구하고,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LEGO® SPIKE™ Prime) 키트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로봇을 직접 프로그래밍해보는 실습 경험도 쌓을 수 있다.

자유학기제 중학교 대상 코딩 교육 프로그램

2019년 3월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자유학기제 중학교를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테마로 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 '투모로드 스쿨'을 본격 시행했다.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는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투모로드 스쿨은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율주차와 차선유지, 충돌방지 등 자율주행 차량의 기능 또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코딩으로 직접 구현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투모로드 스쿨 운영을 위해 서울시 소재 교육지원청 세 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레고®에듀케이션의 한국 공식 파트너인 퓨너스와 함께 다양한 학교 환경에 맞춰 4주, 8주, 16주 과정으로 이뤄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했다.

초등학생 대상 코딩 교육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 코딩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성원에 힘입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해당 프로그램을 3~6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다양화해 확대 시행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22년 10월부터 미국의 퍼스트 재단 및 덴마크의 레고® 에듀케이션과 협력,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경진대회인 '퍼스트® 레고® 리그(FLL)'를 후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에는 '2022~2023 퍼스트® 레고® 리그' 한국대회 챌린지 부문의 특별 예선전인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오픈 아이디어 어워드(VWGK Open I.Dea Award)'를 개최했다. 2023년 1월에는 FLL 한국대회 결승전도 후원했다. 이 대회의 우승팀인 RED팀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모로코에서 열린 2023 FLL 오픈 인터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2025년에는 FLL 월드 페스티벌에서 전 세계 160개 이상의 팀 중 종합 3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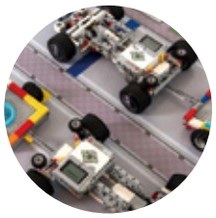
교육 접근성을 개선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20년, 국립특수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21년에는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교구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2022년에는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걸어온 길

2018

- 12월 서울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

- 3월 서울 소재 13개 자유학기제 중학교를 대상으로 코딩 교육 본격 시행
- 4월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5월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8월 전국 5~6학년 초등학생 대상 코딩 캠프 성료

2020

- 4월 코로나19 사태로, 중학생 대상 온라인 코딩 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설
- 12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코딩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1

- 3월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코딩 교육 교구재 무상 제공
- 4월 전국 초등학생 대상 코딩 경진대회 개최

2022

- 3월 42 볼프스부르크 및 국민대학교와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남 지역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과 코딩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7월 SEA:ME 시범 프로그램 개시
- 10월 전국 초등학교 학생 대상 미국의 퍼스트 재단과 덴마크의 레고®에듀케이션이 제휴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경진대회 '퍼스트® 레고® 리그' 한국 예선 대회 개최

2023

- 7월 SEA:ME Lab 개소

2024

- 6월 SEA:ME 해커톤 개최
- 7월 SEA:ME 3기 프로그램 개시
- 8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초중등생 대상 미래 모빌리티 체험교육 운영

2025

- 2월 SEA:ME 프로그램 4기 선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누적 성과

2만 6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코딩 교육에 참여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이룬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미래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6,184명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123명 (2024년 기준)

133+명 (2025년 기준)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교육적 전시 및 프로그램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전시와 대회를 진행했다. '더 넥스트 챕터'와 '고 투 제로' 전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탄소 저감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퓨처 모빌리티 챌린지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19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 '퓨처 모빌리티 챌린지(Future Mobility Challenge)'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벤처스퀘어, 패스트파이브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퓨처 모빌리티 서비스 아이디어와 함께 초연결, 초융합 시대를 앞두고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디지털 서비스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학생들과 팀 멘토는 독일 아우디와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독일 잉골슈타트에 위치한 스마트 팩토리를 둘러보며 최신 자동차 생산공정과 기술을 살펴보고, 전기차 등을 시승하는 등 폭스바겐그룹이 그리는 미래를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넥스트 챕터' 전시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2019년 진행한 '더 넥스트 챕터(The Next Chapter)' 전시는 다음 세대에게 퓨처 모빌리티의 발달과 함께 도래할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된 전시다. 관람객들은 도슨트 투어를 통해 자동차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미래의 자동차와 도시,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에 관한 명사들의 특별한 강연도 들을 수 있었다.

'고 투 제로' 전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21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탄소 저감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고 투 제로(goTOzero)'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는 가상의 탄소제로 섬인 '제로 아일랜드'를 콘셉트로 서울웨이브아트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전기차의 생산부터 사용, 그린 에너지로 충전, 배터리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전체 수명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되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교육적 전시 및 프로그램의 누적 성과

교육적 전시 관람객 수

14,596명
총 관람객

퓨처 모빌리티 챌린지

20명
참여 멘토

105팀
총 참가팀

WE: Preserve

환경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발걸음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통학로와 교실숲을 만들고,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게 될 숲을 복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폭스바겐그룹은 2018년 파리기후협약에 동참한 최초의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인 기업들의 연합체인 'Biodiversity in Good Company' 이니셔티브의 멤버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UN 협약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 기조를 이어 받아, 앞으로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청계아띠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청계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2024년 서울시설공단과 협약을 맺고 '청계아띠'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벽걸이 화분 기부에 더해 청계천 일대 벽면 공간을 꾸미는 작업, 청계천을 따라 꽃을 심는 등 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서울시와 협업해 2019년부터 3년간 초등학교 주변 생활권을 초록빛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30만 명의 학생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소음 감소, 미세먼지 저감 등의 혜택을 누렸다. 2021년 12월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통학로 조성 프로그램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유공시민 표창을 수상했다. 통학로의 순기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산림 재조성

산림 재조성 프로그램은 나무를 심음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림경관을 개선하며,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림을 치유해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생물다양성 확보와 산림 기능 회복,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20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양양의 산불 재해 지역에 6,3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1년에는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강원도 태백 지역의 노령화된 숲을 재조림하는 '국민 참여 탄소중립 숲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22년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산림 재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교실숲 및 환경교육

'교실숲'은 지역 특성으로 통학로 조성이 여의치 않은 학교에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초등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완전치 않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이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공기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나무와 생물다양성,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 콘텐츠와 함께 학생들이 반려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환경교육 키트를 제공했다. 2020년 서울소재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교실숲은 총 170개 학급 4,740명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2020년 상반기부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시범초등학교 2,600명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담은 '리멤버 미(#날 기억해줘)' 캠페인과 환경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앞으로도 관련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 프로그램의 누적 성과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3천170개 이상의 화분을 기부하고, 5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1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3,170개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한 화분

57,071그루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심거나 기증한 나무

134,863명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은 학생

5,402명
환경 교육을 받은 학생

WE: Share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움직임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시크릿 산타와 방한키트 나눔활동이다.
2018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임직원들은 1:1 매칭 펀드를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는 시크릿 산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시크릿 산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시크릿 산타

2018년 시작된 '시크릿 산타'는 지역사회를 위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는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 이어받아,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및 산하 네 개 브랜드인 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시크릿 산타'가 되어 아이들의 소원 목록에 있는 선물을 전달하며, 단순한 선물 전달을 넘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함께하며 아이들과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아동들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겨울 방한키트

겨울 방한키트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활동이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홀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을 위해 방한용품과 건강식으로 구성된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재원 마련은 회사 차원의 지원에 더해 임직원이 모은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그린 기프트박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20년, 공동생활센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에게까지 찾아온 '코로나 우울증'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식물과 티슈형 손소독제로 구성된 그린 기프트박스를 전달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누적 성과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통해 6,000명 이상의 이웃을 보살펴왔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사회적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존중받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6,520명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통해 지원한 사회 취약계층

수상 내역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문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회공헌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했다.

-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기업 대회
  기업부문 종합대상 수상(2019/2020년)
-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 교육사회공헌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인증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 조선일보 사회공헌대상
  학술교육 부문 대상
-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사회적책임부문 대상
-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 교육사회공헌
  부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 서울시 도시녹화 캠페인
  '서울, 꽃으로 피다' 유공자 표창장 수상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15층
(서린동, 영풍빌딩)

전화 02-6009-0059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려면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재단법인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2025